

# 청년이 돌아온다...신안군, 기회의 땅으로 뜬다



지난달 31일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의 한 스마트팜 농장에서 이지훈(30)씨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신안군 압해읍 신용1리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여 엽지를 치켜들고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 안두리의 스마트팜 농장에서 이민석(42)씨가 자신이 수확한 애플 망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민석씨 제공〉

## 새해 희망가 - '햇빛' 나고 '바람' 부는 신안 주민들 만나보니

“고향을 떠났던 친구들 가운데서도 귀농·귀어를 하겠다고 신안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타 지역에서 신안을 찾아오겠다는 이들도 상당수예요.”

지난달 31일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의 한 스마트팜 농장에서 만난 이지훈(30)씨는 “타지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미래를 꾸려가기에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고향인 신안으로 돌아왔다”며 “스마트팜을 새로 지으면서 비용 부담이 컸지만, 군에서 긴밀하게 지원해 준 덕분에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을 떠나 천안과 평택 등지에서 수산질병 관리, 경호·물류 업무 등에 종사하다 10여년 만에 신안으로 돌아오게 됐다.

올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농업에 뛰어들면서 초기 비용 부담이 컸지만, 전남도와 신안군의 청년 자립농 맞춤형 지원이 정착의 버팀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고향 신안에 체계적인 농업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신안군에는 이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귀농·귀어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2024년 12월 3만8173명이었던 신안군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4만1545명으로 집계돼 1년여 만에 3372명(8.8%) 늘었다.

같은 기간 청년층(18~45세)은 7160명에서 8179명으로 14.2% 늘었으며, 이는 중장년층(46~64세)이 1만2858명에서 1만3876명으로 7.9%, 노년층(65세 이상)이 1만5292명에서 1만6081명으로 5.2% 늘어난 데 비해 가파른 상승폭이다.

읍·면 단위로 봤을 때 압해읍은 같은 기간 6028명에서 6869명으로 841명(12.2%), 자은면은 2267명에서 2678명으로 411명(15.3%) 늘었고, 안좌면은 355명(9.5%) 늘어난 3742명, 지도읍은 354명(7.7%) 늘어난 4985명으로 집계됐다. 중갑읍이 가장 작았던 하의면까지 1611명에서 1665명으로 54명(3.2%) 늘면서 지난 1년간 군 내 14개 모든 읍·면의 인구가 증가세를 보였다.

신안군 인구는 지난 2020년 4만명 선이 무너진 뒤 내림세를 나타내다, 2023년부터 반등해 3년 연

맞춤형 정책에 청년 자립농 정착 햇빛연금·농어촌기본소득 효과 1년 여만에 인구 3372명 늘어 유입 청년들 지역 전도사로 나서 선순환 구조에 신중년층도 관심 기존 주민들 “마을에 활기” 반색

속 오름폭을 보이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자연 감소폭은 여전히 크지만,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훌쩍 웃돌며 순유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햇빛 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보니 “와서 살기만 해도 이득”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상황이다. 더불어 새로 유입된 청년들이 ‘지역 전도사’로 나서는 등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안좌면 산두리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이민석(42)씨도 비슷한 사례다.

5년 전 고향 마을에 정착한 뒤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는 이씨는 “소멸 위기에 놓인 시골이었지만, 최근 들어 연고가 없는 청년들의 발길도 느는 등 섬 지역 특성상 다소 폐쇄적이던 문화가 개방되는 흐름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이씨와 아내, 자녀 2명 등 네가족은 ‘햇빛연금’과 적금 혜택을 받으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도 받고 있다. 그는 “군에서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예산도 적극 투입하고 있다”며 “스마트팜 경쟁률도 높아졌고 청년뿐 아니라 은퇴한 신중년층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활짝 웃어보였다.

이씨는 훗날 어린 자녀들이 농장을 물려받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기반을 다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아가 신안이 미래 세대가 살아가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시작한 망고 사업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다. 도시에 살 때보다 시간

적 여유가 생긴 것도 장점”이라며 “내가 성공 사례로 남아야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냐”고 웃었다.

기존 지역 주민들도 화색이다. 박영수(67) 신용1리 이장은 “햇빛연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들이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해왔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인구 증가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아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신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홍균(69) 북룡4리 이장도 “최근 1년 사이 압해읍 인구만 900여명 늘었다. 기본소득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이 지속된다면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주민들은 신안군에 새로 정착하는 이들이 많아진 배경으로 정부,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를 막겠다며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기반으로 한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정착을 뒷받침하는 주축이다. 현재 군민의 49.1%에 해당하는 2만403명이 햇빛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오는 2032년부터는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바람연금’ 지급도 예정돼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이달부터 일정 기간 이상 전입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을 비롯해 여선·어구 구입 및 임대 지원, 김 양식 사업 지원, 임대아파트 조성 등 생업과 주거 분야 정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입 장려금과 결혼 축하금, 희망디딤돌 사업, 문화복지카드 등 생활 밀착형 지원책도 제공된다.

김준호 신안군 인구정책과장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전남도와 군 차원의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변화의 흐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를 위한 과정으로 주거·일자리·창업 등 정책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안=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신안=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왕진버스’·‘배달 이동장터’ 운행 늘려 소멸 위기 전남 농촌 생활서비스 확대

‘왕진버스’ 운행 지역이 늘어나고 ‘배달되는 이동장터’ 운행 구간도 확대되는 등 소멸 위기의 전남 농촌을 위한 생활 서비스가 확대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강진·고흥·곡성 등 전남 13개 시·군에서 사업에 참여했던 ‘농촌 왕진버스’ 운영지역이 올해 광양·나주·보성·순천 등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 17곳으로 늘어난다.

왕진버스는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개선하

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465개 읍·면에서 시행됐던 것을 2028년까지 800개 읍·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사막’ 대응책으로 신안군에서 운영됐던 ‘농촌 이동형 장터’도 지난해 9곳에서 오는 2028년 30곳까지 늘리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춰 이동형·주문배달형·교통연계형 등으로 나눠 운영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또 농번기 새벽·야간 시간대 육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육아도우미를 양성하고, ‘틈새돌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올해 도입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검찰, 이정선 교육감 기소...이 교육감 “기획 기소” 반발

### 감사관 채용 개입 혐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날 3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A씨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

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이 교육감과 채용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사무관(5급, 당시 인사팀장) B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B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리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기획 기소”라며 반발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결정은 최근 구속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기각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짜맞추기 수사, 위법한 인지수사와 별건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며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건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